

## 미국 신보수주의의 정치적 의의와 연구경향\*

남궁곤\*\*

이 논문은 미국 신보수주의를 정의하기 위해 네 가지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기존 연구 현황을 정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화술방식 분석방법이다. 이 방법은 신보수주의자들의 전기적 요소를 부각시켜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연구방법을 따르면 신보수주의는 “원래는 좌파였지만 우파로 전향한 사람들이 군사주의적 반공산주의, 자본주의 경제, 최소 복지국가, 전통적 엘리트에 의한 지배, 그리고 전통적 문화가치의 회복 등을 추구하게 되는 이념적 개종 현상”으로 정의된다. 둘째, 사고유형 분석방법이다. 이 방법은 신보수주의가 내포한 이념이나 사상적 요소를 규명하는 방법으로 신보수주의 정치세력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이념을 추적하는 방법이다. 이 연구방법을 따르면 신보수주의는 “미국 뉴딜식 자유주의 대안으로 등장했지만 기본적으로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 사상을 재조명하려는 여러 보수 성향을 지닌 노력들의 적분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셋째, 권력네트워크 분석방법이다. 이 방법은 신보수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구축되는 정치사회 세력을 파악해 내서 그들의 인적 구성과 사회적 결속력을 파악해 내는 방법이다. 이 분석방법에 따르면 신보수주의는 “일종의 정파 혹은 정치적 이익집단”으로 정의된다. 또는 “보수정권에서 고위직을 차지하고 난공불락의 능력을 발휘하는 미국 동부 해안 학파”로 명명되기도 한다. 넷째, 정책전략 분석방법이다. 이 방법은 미국 신보수주의 이념의 현실화 과정과 현실 정책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의하면 신보수주의는 “특정 이념을 공유하면서 자신들의 이념 목표를

\* 이번 호의 특집으로 다루어진 미국 신보수주의에 관한 논문들은 모두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3-042-B00012).

\*\*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gon2000@ewha.ac.kr

실천하려는 지식인 집단의 운동”으로 정의된다. 신보수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념을 정책결정자들에게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이념적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세력으로 간주된다.

## 1. 미국 신보수주의 연구 방법론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는 미국 정치 담론에서 단순하게 특징지을 수 없는 개념이다. 신보수주의란 말은 이념 성격은 물론 전기 성격이 강하다. 그 말이 현대 미국 용어 사전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70년대 후반이다. 1970년대 중반 미국에서 발행된 사회과학 사전 색인에도 신보수주의란 말은 보이지 않는다(Sills, 1974). 현재까지도 신보수주의가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하게 정의되고 있지 않다. 그 만큼 신보수주의의 개념은 다의적이다.

신보수주의는 신보수주의 이념 자체보다는 ‘신보수주의자(Neo-conservatives)’로 우리에게 더 익숙해 있다. 신보수주의를 객관적으로 정의하고 정치적 의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보수주의자들에 대한 정의와 정치적 의의를 파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신보수주의자는 새로운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인간군을 뜻한다. 그들은 원래 좌파였지만 구소련이나 반미 급진주의 집단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거부하는 좌파에 염증을 느끼고 우파로 전향한 사람들을 가리킨다(Frum, 1994). 신보수주의자란 이름은 해링톤(Michael Harrington)과 *Dissent* 잡지의 편집인들이 그들의 동료였던 이들을 경멸적인 뜻으로 처음 사용했다.

신보수주의자들은 자신들을 신보수주의자로 부르는 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포도레츠(Norman Podhoretz)는 신보수주의란 이름이 경멸적인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불쾌하게 여긴다. 아브람스(Elliot Abrams) 같은 경우에는 한술 더 떠서 그런 경멸적인 의도 자체가 영예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모험심을 촉발하는 계기라고까지 자신만만해 한다. 모이니한(Daniel Patrick Moynihan)은 전통적인 보수주의자인 버클리(William F. Buckley, Jr.)같이 우파에 속하는 친구들은 자기를 좌파진보(left-

liberal)라고 부른다고 푸념하기도 한다(Moynihan, 1975). 신보수주의의 대부라고 일컫는 크리스톨(Irving Kristol)은 자신의 이념 개종 과정을 다음과 같이 회술하고 있다.

세상에는 ‘새롭다’, ‘부활’, ‘후기’ 등을 뜻하는 ‘네오(neo)’라는 유전인자가 존재하는 것일까? 내가 품은 생각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이런 ‘네오’라는 유전인자로 점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나는 네오 막시스트였으며, 네오 트로츠키안이었으며, 네오 사회주의자였으며, 네오 자유주의자였으며, 중국에는 네오 보수주의로 자리매김되었다. 그 어떤 이념과 철학도 내 인생을 내가 만족할 만큼 일관되게 묘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Kristol, 1995: 3).

신보수주의자로 평가받는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일에 종사하는 것도 아니다. 어떤 신보수주의자는 잡지 편집을 맡고 있고 어떤 신보수주의자는 대학 강단에서 있다. 어떤 신보수주의자는 두뇌집단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신보수주의자는 목회 일을 맡고 있다. 그렇지만 그런 일들은 신보수주의자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어떻게 보면 *Weekly Standard*, *Commentary*, 혹은 *Public Interest* 잡지에 정기적으로 기고하는 사람들을 신보수주의자로 정의하는 편이 나올 법하다(Gerson, 1997: 4-5). 어떤 사람이 만일 *Policy Review*, *New Criterion*, *First Things*, *Crisis*, *American Spectator*, *Forbes*, *Fortune*, *American Scholar*, *American Enterprise*, *National Interest*, *National Review*, *Public Opinion*, *Society*, *Foreign Affairs*, *Washington Quarterly* 등에 기고하면 ‘잠재적인’ 신보수주의자로 여겨도 된다.<sup>1)</sup>

신보수주의자들의 저술 양태는 어떤가? 신보수주의에 대한 최초의 분석가인 피터 슈타인펠즈(Peter Steinfels)에 의하면 신보수자들의 저술 성향은 독특하다. 그는 ‘신보수주의 지성계의 지도는 바로 잡지의 지도’라는 말로 신보수주의들의 저술 형태가 단행본보다는 정기간행물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린바 있다. 예를 들어 어빙 크리스톨은 완전한 단행본 형태의 책을 출간한 적이 없다(Steinfels, 1979:

1) 이들 잡지 이외에 신보수주의 이념의 전파와 확산에 기여했던 잡지들은 상당수에 이른다. 그 잡지들의 목록과 대강에 대해서는 Dorrien(1993: 9-10)을 참조할 것.

4).<sup>2)</sup> 그는 일생에 네 권의 책을 집필했는데 모두가 에세이를 묶은 형태이다. 사실 신보수주의 책들은 필자들이 특정한 잡지에 기고했던 글들을 모아 출판한 것이 전부이다.<sup>3)</sup>

미국 신보수주의는 미국에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관찰자의 관심과 연구 주제에 따라 신보수주의 이념(Neo-conservatism), 신보수주의자(Neo-conservatives), 신보수의 세력(네오콘, Neo-cons), 신보수주의 정책(Neo-conservative policies) 등을 구별 없이 지칭한다. 따라서 미국 신보수주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좀더 체계적인 분석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 동안 미국에서는 신보수주의에 관해서는 연구가 꽤 진척되어 있다. 이들 연구물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의 접근법을 중심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미국 신보수주의에 대한 화술방식 분석방법(Narrative Analysis)이다. 이 방법은 신보수주의자들의 전기적 요소를 부각시켜 분석하는 방법이다. 서술 방식도 보통 연대기적 또는 역사적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 연구방법은 미국의 현실 정치, 현실사회 그리고 현실외교에서 신보수주의 세력이 등장하는 배경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데 분석의 초점이 있다.

둘째는 사고유형 분석방법(Style of Thought Analysis)이다.<sup>4)</sup> 이 방법은 신보수주의가 내포한 이념이나 사상적 요소를 규명하는 방법으로 신보수주의 정치세력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이념을 추적하는 방법이다. 일종의 문화적 접근방식인 셈이

---

2) 크리스톨의 저작에 관한 참고문헌 일람은 Christopher DeMuth and William Kristol(1995)의 Part Three 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3) 대표적인 것으로 DeMuth and Kristol(1995)이 있다. 이 책은 크리스톨의 75세 생일을 맞아 15명의 지인과 제자들이 자신들과 크리스톨의 개인적인 인연을 회고한 글을 모아놓은 것이다. 일종의 전기적 연구인 셈이다. 이 책의 필진들은 크리스톨과의 개인적인 일상생활의 일화는 물론이고 그로부터 받은 사상적 연대감을 자신들의 인식틀로서 분석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이 책의 부록에 크리스톨이 각종 기고문이나 저작들 중에서 다시금 그 의미를 되새길 만한 어록들을 수록해 놓고 있는 점이다. 또 자서전적 단행본으로서는 Kristol(1995)이 있다. 이 책은 신보수주의 이념과 운동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던 크리스톨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문학, 교육, 그리고 가치문제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던 에세이를 모아 집대성한 단행본이다.

4) 이 두 가지 방법은 사회학자인 칼 만하임(Karl Mannheim, 1953: 74-164)이 사회정치적 사고를 기술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다. 이 연구방법은 신보수주의의 이념체계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그러한 이념체계에 사상적 배경을 제공했던 핵심 논지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추출해 내서 분석한다.

셋째는 권력네트워크 분석방법(Power Network Analysis)이다. 이 방법은 신보수주의의 이념을 기반으로 구축되는 정치사회 세력을 파악해 내서 그들의 인적 구성과 사회적 결속력을 파악해 내는 방법이다. 일종의 사회적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방법은 신보수주의를 단순한 담론차원이 아니라 현대 미국 정치와 사회 구조에서 신보수주의자들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의 인적 연계망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넷째는 정책전략 분석방법(Policy Strategy Analysis)이다. 이 방법은 미국 신보수주의의 이념의 현실화 과정과 현실 정책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신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고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주장과 근거를 분석함은 물론, 신보수주의의 이념이 미국 정치와 외교 현실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 연구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미국 신보수주의 확산이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 과정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파악해 낼 수 있다. 또 신보수주의의 정책적 의의를 미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측면에서 분석해 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방법론을 중심으로 신보수주의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 네 가지 방법론에 따라 신보수주의를 정의하다 보면 미국에서의 신보수주의에 대한 연구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2. 미국 신보수주의의 정의와 연구현황

### 1) 화술방식 분석방법으로 본 미국 신보수주의: 역사적 요소와 시기구분

미국 신보수주의에 대한 화술방식 분석방법(Narrative Analysis)은 미국 역사에서 신보수주의 세력이 등장하는 배경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이다.<sup>5)</sup> 신보수주의

5) 대표적인 연구서로는 Ehrman(1995)이 있다. 이 책의 기술방식은 신보수주의자들이 진보

자들의 전기적 요소가 강하고 서술 방식도 연대기적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신보수주의란 말이 갖는 전기적 요소란 신보수주의자들의 전기, 즉 개인적 경험이 미국의 20세기 경험과 그 맥을 같이하는데서 찾을 수 있고 유추된다. 신보수주의자의 경험이란 대학에서의 마르크스주의 학습, 반공산주의 정서, 시민권의 옹호, 그리고 급진주의의 실험 등으로 요약된다(Judis and Buckley, 1988: 326-327). 이러한 도식적인 지적은 신보수주의자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단서가 된다. 신보수주의자들의 심리에는 마니교 식의 이분법이 자리잡고 있고 어떠한 완충지대도 들어설 수 없으며 심지어는 자신들과 이념적 편린을 공감할 수 있는 전통적 보수주의자와도 등질 수 있는 여지가 깃들여 있다.

이 연구방법을 따르면 신보수주의는 “원래는 좌파였지만 우파로 전향한 사람들이 군사주의적 반공산주의, 자본주의 경제, 최소 복지국가, 전통적 엘리트에 의한 지배, 그리고 전통적 문화가치의 회복 등을 추구하게 되는 이념적 개종 현상”으로 정의된다(Dorrien, 1993: 8). 원래 ‘보수주의’ 자체가 고도로 조직화되고, 일관되고, 체계적인 ‘진보주의 운동’에 의도적으로 반대하기 위한 반작용으로서의 운동으로 등장했다(Mannheim, 1953: 99). 버크(Edmund Burke) 이래로 현재까지 지속되는 보수주의 이론은 보수주의 운동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동력을 찾는 과정이었다. 신보수주의도 신보수주의를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항하기 위해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공론화 시켜왔다. 그 방식은 좌파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신보수주의자들이 색다른 원칙을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그들의 정치적 입장이 표출되어 왔던 것이다.

화술방식으로 미국 신보수주의를 분석할 때 중요한 것은 신보수주의 세력의 시대적 변천과정이다.<sup>6)</sup> 시대적 변천의 필요성은 신보수주의 논리가 갖는 아주 중요

---

적인 민주당원에서 공화당원으로 바꾸는 일종의 정치적 이민(political immigration) 과정을 기술한다. 이때 사용하는 분석틀은 연대기적 방법(chronological methodology)이다. 이 책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포도레츠(Norman Podhoretz), 커르크패트릭(Jeane Kirkpatrick), 모이니한(Daniel Patrick Moynihan), 그리고 터커(Robert W. Tucker)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6) 어떤 이념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신보수주의도 지난 50년 동안 일정한 변화를 겪어왔다. 신보수주의가 갖는 원칙과 아이디어는 크리스톨(Irving Kristol)과 힘멜파브(Himmelfarb)의 지난 50여 년에 걸친 작품에 잘 드러나 있다. 이들이 처음 제창한 아이디어에 다른 사람들의

한 측면이다. 어떻게 신보수주의자들이 지금과 같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신념은 지난 70여 년 동안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에 대한 해답을 주기 때문이다. 여러 문헌을 종합해 볼 때 미국 신보수주의의 세력은 크게 네 시기로 구분되어 발전되어 왔다.

첫 번째 시기는 미국에서 신보수주의가 사회주의에 몰두하던 1930년대에서 1960년대 후반까지이다. 두 번째 시기는 신보수주의가 우파로 개종하는 시기로서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을 전후한 시기이다. 세 번째 시기는 신보수주의가 상아탑에서 머무는데서 벗어나 현실 정치세력화 되는 시기로서 대략 198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클린턴 행정부에 이르는 2000년을 전후한 시기이다. 네 번째 시기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등장하는 2000년부터 신보수주의 세력이 그들의 이념을 현실화시키는 현재까지로 구분된다. 이제 각 시기별로 신보수주의의 변천과정을 짚어보자.

미국 신보수주의가 사회주의에 몰두하는 시기는 1930년대 말로 뉴딜연합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기 신보수주의자들의 사회주의 이념은 1930년대 후반 뉴욕시립대학(City College of New York)에서 트로츠키 집단에 참여함으로써 유지되었다. 이들이 주로 모였던 곳은 시립대학 내 알코브 원(Alcove One)이라는 카페테리아였다. 이들 말고도 캠퍼스 내에 또 다른 정치성향의 집단인 스탈린주의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다른 카페테리아인 알코브 두(Alcove Two)를 주된 모임 장소로 이용했다. 당시에 스탈린주의자들은 트로츠키안보다 수적으로는 세 배 정도가 많았다. 사회주의자 혹은 트로츠키안으로서 어빙 크리스톨(Irving Kristol)과 그의 동

---

아이디어가 접목되고 합세하였다. 뉴하우스(Richard John Neuhaus)와 같은 사람은 처음에는 다른 이념에 젖어 있었지만 늦게 신보수주의 대열에 합세한 경우이다. 바이겔(George Weigel) 같은 사람은 아주 젊었을 때부터 신보수주의를 신봉해 온 경우이다. 포도레츠(Norman Podhoretz) 같은 사람은 신보수주의 대열에 일찍 합세하다가 몇 년 동안은 새로운 이념에 빠졌다가 나중에 다시 신보수주의 대열로 회기한 경우이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신보수주의자들은 개인적으로 보면 모두는 어느 정도 변화를 거쳐 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1950년대 이래도 신보수주의가 품고 있던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은 아주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 1950년대의 시대 상황은 반공산주의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에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의 분위기가 아주 활발했던 토양을 제공해 줄 수 있었다(Gerson, 1997: 23-27).

료들은 사회주의 좌파들로 구성된 적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투쟁함으로써 그들의 아성을 지켜나갔다.

신보수주의의 대부로 알려진 어빙 크리스톨(Irving Kristol)은 알코브 원에서 보냈던 생활을 회고면서 “젊었을 때 급진주의 운동에 동참하는 일은 젊었을 때 사랑에 빠지는 일과 같았다. 사랑했던 여자가 나중에 타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랑의 경험은 너무나 값어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소중한 경험에서 완전히 각성할 수는 없는 일이다”고 고백한 바 있다(Kristol, 1983: 4).

크리스톨은 1940년대 초 그가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는 허드슨 강의 서쪽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을 정도였다. 그는 그가 사회주의와 결별하면서 “내가 급진주의와 결별하게 되는 과정은 아주 빠르게 진행되었다. 나는 미드웨스트 지방으로 군 입대를 하게 되었다. 내가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 대부분은 키체로(Cicero)라는 곳 출신이었는데 나는 그런 타운이 있었는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곳이다. 나는 이런 친구들과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에게 사회주의란 어떤 것인지 알려주었다면 그들은 아마도 그걸로 폭동이나 일으키는데 썼을 것이다”고 회술하였다(Kristol, 1989: 184).

신보수주의 변화의 두 번째 시기는 1960년대 후반 소위 반문화운동에 대한 대항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신보수주의가 1960년대 반문화에 공격을 개시할 수 있게 된 것은 아주 오래 전에 뿌려진 이념적 씨가 만개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1960년대 반문화에 대한 신보수주의의 반격은 매우 열정적이었고 또 두드러진 것이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으며 그들이 품었던 문제의식을 상실한 것도 아니었다.

이 시기에 신보수주의자들은 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던 제도와 사고를 강력하게 방어해 왔다. 그들이 생각한 제도와 사고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보수주의와의 동맹이나 보수주의가 수 년 동안 공들여 왔던 생각과의 제휴가 필요했다. 그렇다고 신보수주의가 원래 품고 있던 원칙을 훼손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신보수주의가 때로는 독자적인 사상으로, 때로는 보수주의와 혼동된다. 한때 신보수주의만이 독점했던 생각들이 이제는 보수주의의 일부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시기에 신보수주의의 주장과 위치는 좌파적 입장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그



들의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은 공산주의를 비판하지 않는 지식인들을 공격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급진주의에 대한 비판은 학생운동에 대한 힐난과 자유주의적인 교수들에 대한 혹평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대신 신보수주의는 자유시장의 도덕적 신봉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신보수주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문화에 만연한 군사적 세속주의 때문에 미국 사회가 도덕적 타락을 가져왔다고 판단했다. 문명에 필요한 공공선의 확보를 위해 신보수주의자들은 자신들을 도덕적 가치의 수호신으로 자처하고 나섰다. 초기 신보수주의자들은 그들이 사회에 진출한 이후인 1960년 후반 사회주의를 포기했다(Gerson, 1997: 21-23). 이는 베트남 전쟁의 영향도 있었지만 그들이 좀더 넓은 세계를 접촉한 결과였다.

신보수주의 변화의 세 번째 시기는 대체로 레이건 대통령의 당선으로 시작되는 1980년 이후부터 냉전과 클린턴 행정부의 종식과 함께 끝을 맺었다.<sup>7)</sup>

신보수주의자들은 그 정치적 영향력 면에서는 전세대 신보수주의자들보다 훨씬 강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지성사적인 측면에서는 이 시기 신보수주의자들의 지적 영향력은 반대로 두드러지게 약화된 특징이 있다. 신보수주의의 논리가 적어도 선구자 세대의 신보수주의 논리보다 약했다. 선구 신보수주의자들은 냉전의 종식으로 인해 자신들이 간파했던 국제적 의제는 이미 달성된 것으로 보았고, 이제는 보수주의 혁명 과정으로 볼 때 국내 정책에 관한 목표가 그들이 천착해야 할 과제로 보았다. 하지만 이 시기 신보수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관심을 지나치게 국제적 이슈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첫 세대 신보수주의자들이 영향력 있는 학계의 엘리트였고 또 끝까지 학계에

7) 1976년 지미 카터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고 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신보수주의자들에게는 매우 불행한 사건이었다. 신보수주의자들을 비롯한 민주당 내 보수적 경향의 지지자들은 잭슨(Henry Jackson) 후보를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지하였지만 무명의 카터에게 패배하였다. 카터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자 당내 보수적 성향의 지지자, 특히 신보수주의자들에게는 별로 빛진 것이 없었다. 어찌보면 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카터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 자체가 카터에게는 매우 불행한 일이었다. 당시 미국은 국내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이란 인질사건, 니카라과 좌익 혁명, 소련의 아프간 침공 등의 외환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카터와 신보수주의자의 결별은 자명한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찾아낸 트루만은 신보수주의와 공화당을 연결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의 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남아있었던 것에 비해 이 시기 신세대 신보수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았다(Dorrien, 1993: 390).<sup>8)</sup> 대부분의 신보수주의자들은 학계에서 벗어났다. 그들은 공화당 행정부에서 고위직을 쫓아 현실참여를 그들의 실천 방안으로 삼았다. 많은 신보수주의자들이 1980년대에 워싱턴에서 정치에 입문하여 그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 펄(Richard Perle)과 울포위츠(Paul Wolfowitz)를 비롯해서 많은 신보수주의자들이 정치권과 연계하여 네오콘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 새로운 신보수주의자들은 알코브 원에서 시작된 신보수주의의 문화적 환경과는 확연히 다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들의 입장을 확대해 갔다.

신보수주의 변화의 네 번째 시기가 시작된 것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당선으로 신보수주의자들의 부활을 통해서이다. 특히 2001년 9·11 테러는 신보수주의를 미국 조야에 등장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Halper and Clarke, 2004: 40-42). 지식인 사회에서 비록 활발하게 신보수주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지만 신보수주의가 지닌 신조나 이를 추종하는 집단이나 구체적인 유력인사의 이름이 미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각종 시사 잡지나 언론, 학술잡지에 거명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신보수주의 이념의 핵심과 논지들보다는 '초강경파'나 '전쟁광' 등 신보수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비유들이 난무하였다. 2004년 부시 대통령의 재선 과정에서 신보수주의자들은 기독교 복음 세력과 연합하는 양상도 나타났다.

부시 대통령에 대한 신보수주의 영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Daadler and Lindsay, 2003). 이 견해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은 어떤 누구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스스로 일관된 세계관과 단호한 결단력을 지닌 지도자임을 주장하고 있다. 신보수주의자들보다는 오히려 체니(Dick Cheney) 부통령이나 럼스펠드(Donald Rumsfeld) 국방장관을 비롯한 전통적 공화당 강경파 참모진의 영향력을 부각시킨다. 하지만 그들은 신보수주의 사고와 양립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들은 1997년 신보수주의 핵심 문서로 꼽히는 '새로운 미국세기를 위한 프로젝트(PNAC: Project for New American Century)' 성명에 서명하는데 동참하였다는 사

8) 신보수주의자들의 현실참여에 대해서 2004년 12월 28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미국 신보수주의 연구 발표회에서 김선욱(송실대) 교수는 신보수주의가 인간으로부터 이념이 분리됨으로써 사상의 단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프로퍼겐더의 수준으로 질적 저하를 보였다고 지적하였다.

실이 이를 대변해 준다. 림스펠드의 경우에는 1998년 PNAC가 당시 클린턴 대통령에게 후세인의 축출을 촉구하는 서한에도 동참하였다. 체니의 경우에는 국제기구가 미국 주권이 갖는 권한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국제기구에 대해 절대적인 반감을 갖고 있는 측면에서 신보수주의와 뜻을 같이했다. 이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신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의제들이 현실 미국 정치외교에서 현안으로 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Halberstam, 2002: 86-94).

## 2) 사고유형 분석방법으로 본 미국 신보수주의: 사상적 요소와 공화주의 도덕 전통

사고유형 분석방법(Style of Thought Analysis)은 신보수주의가 내포한 이념이나 사상적 요소를 규명하는 방법으로 신보수주의 정치세력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이념을 추적하는 방법이다. 이 연구방법은 신보수주의 이념체계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그러한 이념체계에 사상적 배경을 제공했던 핵심 논지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추출해 내서 분석한다.

이 연구방법을 따르면 미국 신보수주의는 “미국 뉴딜식 자유주의 대안으로 등장했지만 기본적으로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 사상을 재조명하려는 여러 보수 성향을 지닌 노력들의 적분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봉희, 2003: 15-16). 실제로 대부분의 신보수주의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특정한 하나의 지적 유형으로 간주하고 있다(Podhoretz, 1995: 23). 또 그들은 다른 신보수주의자들의 생각과 사고들도 자신들의 집단 작업에 통합시켜 이해하려고 한다. 신보수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독특한 사회운동의 일부분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물론 신보수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작업 자체에 강한 자신감과 긍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특정한 지적인 공동체의 구성원이고 그 곳에서 유리될 수 없다는 점을 자각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신보수적 입장을 견지하는 잡지나 간행물 사이에는 특별한 경쟁심이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똑같은 독자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아주 유사한 특성을 지닌 독자를 공통 대상으로 삼는다. 신보수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념을 정교화 하는데 관심이 많다. 하지만 그 이념이 어떻게 정교화 되고 또 누가 그 이념을 정

교화 하는데 공헌이 있는지 따위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신보수주의는 독특하고 흥미로운 사상학파이다, 왜냐하면 신보수주의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적실성이 있는 철학적 운동이기 때문이다. 신보수주의자들은 도덕적 이념을 갖고 정치에 입문하고 간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보수주의는 지적인 고결성을 희생하지 않고 서도 변화할 수 있고 신보수주의가 갖는 정치적 입장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비난을 해명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특별히 이견 신보수주의 입장이라고 분명히 할 만한 하나의 정치적 관점은 없다. 신보수주의의 주장에는 다양한 방식의 사고, 다양한 양식의 추론, 그리고 다양한 관점의 사회질서관이 내포되어 있다. 어떤 특정한 정치적 관점은 포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윌슨(James Q. Wilson)의 말을 인용해 보자.

신보수주의 선언, 신보수주의 신조, 신보수주의 종파, 신보수주의 깃발, 신보수주의 성가 또는 신보수주의 암호 따위의 것들은 없다. 신보수주의는 일종의 내적 긴장을 유발하는 주사와 같다. 내가 글을 기고하는 잡지들은 대개 이러한 내적 긴장을 잘 인지하고 있고 또 찾아내기는 어렵지만 아주 쉬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편집되고 출판된다. 이러한 성향 때문에 신보수주의자들은 그 어떤 것도 선호하지 않는다는 빈정거림을 듣곤 한다. 신보수주의는 하나의 정서이지 이데올로기가 아니다(Wilson, 1981: 509).

신보수주의를 명백하게 정의할 수 없는 이유는 미국 정치에서 정치이념을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잣대로 측정하고 있는 점이 갖는 한계와 관계가 있다. 신보수주의 이념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들의 바람을 쫓는 원자화된 개인으로 이루어진 사회가 어느 정도 공공선을 창출해야 한다는 자유주의 인식방법을 거부한다.<sup>9)</sup> 하지만 신보수주의 이념은 비자발적인 특성들, 예를 들면 인종, 계층, 직업 등은 개인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자유주의 이념은 고집한다. 마찬가지로 신

---

9) 미국에서 사용되는 신보수주의는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지역적 특성을 지녔다. 유럽에서는 신보수주의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을 가리키고 영국에서는 특히 신우파(new right)로 부른다. 캐나다에서는 이들 개념이 모두 그 의미가 상통하는 것으로 여긴다. 굳이 구별하자면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은 신자유주의를 선호하는 것 같고 영국계 캐나다인들은 신보수주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DeMont and Lang, 1999: 19).

보수주의 이념은 전통의 권위와 과거의 찬미에 강조점을 두는 전통적 보수주의 이념을 거부한다. 하지만 질서, 연속성 그리고 공동체를 보는 보수주의의 관점에는 공감한다(Gerson, 1997: 8-9).

신보수주의 인식방법은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단순히 취사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신보수주의가 갖는 상반된 주장들은 사회사상 혹은 정치사상 측면에서 명백한 추출방식을 갖고 있다. 신보수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자유주의 혹은 보수주의 어느 쪽으로도 환원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그 특징은 바로 공화주의 도덕전통(republican virtue tradition)에서 비롯된 것이다(Weintraub, 1996). 공화주의 도덕전통이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유와 공동체에 대한 확신이다.<sup>10)</sup>

자유와 공동체는 때때로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양면에서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타협되고 화해해야 할 대립개념으로 자리매김 되곤 한다. 하지만 공화주의 도덕전통은 이러한 절충적 입장을 명백히 거부한다(Gerson, 1997: 9-11). 공화주의 도덕전통은 개인의 자유는 공동체 안에서 배양되고 실행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또 주장한다. 공화주의 도덕전통은 또 공동체는 개인의 자발적인 헌신에 의해 창출되고 유지된다고 본다. 따라서 공유된 가치나 공공선을 천부적으로 억압하는 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다양성과 다원성을 천부적으로 타락시키는 도덕도 존재하지 않는다. 신보수주의는 바로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 3) 권력네트워크 분석방법으로 본 미국 신보수주의: 사회적 연계와 이익집단

권력네트워크 분석방법(Power Network Analysis)은 신보수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10) 이 점과 관련하여 윌슨(James Q. Wilson)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주목된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역시 중요한 사상적 영향을 미쳤다. 내가 토크빌, 연방주의논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공통으로 찾아낸 것은 이론과 실제의 결합과 단정한 시민이 자기 성찰을 통해 시험해 보려는 희망이다. 자기성찰을 통한 시험은 곧 시민들에게 가장 저급한 제도를 강요하지 않고 가장 덕망있는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있다.” 이런 면에서 토크빌은 크리스톨에게 항상 영감을 주어 왔다. 크리스톨 역시 토크빌을 무한의 현자로 불렀다(Kristol, 1987: 8).

구축되는 정치세력을 파악해 내서 그들의 인적 구성과 사회적 결속력을 파악해 내는 방법이다. 이 연구방법은 신보수주의를 단순한 담론차원이 아니라 현대 미국 정치와 사회 구조에서 신보수주의자들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을 밝히고 이들의 사회적 네트워크 구성이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를 제시하게 된다.

권력네트워크 분석방법에 따르면 미국 신보수주의는 “일종의 정파(*clique*) 혹은 정치적 이익집단(*interest group*)”으로 정의된다(Halper and Clarke, 2004: 4). 또는 “보수정권에서 고위직을 차지하고 난공불락의 능력을 발휘하는 미국 동부 해안 학파”로 명명되기도 한다(Halper and Clarke, 2004: 13-15). 이 경우 신보수주의자는 신보수주의 이념의 확산에 공헌했던 지식인들은 물론이고 정부에 참여한 전 현직 고위관료를 비롯해서 의회, 두뇌집단 등에 포진한 일련의 인간군을 뜻한다. 신보수주의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적 관료주의 특성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외교정책이 상근하는 관료들에 의해 좌우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소규모 집단의 교수나 변호사, 혹은 어떤 지배집단이 정책결정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미국에서는 기업가적인 정책입안과 정치적 임명직이 담당하는 전통 때문에 비관료적 집단이 외교정책 결정 역할을 맡는 일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Economist*, 2003/4/24: 4).

신보수주의자들이 모두 똑같이 사고하는 것은 아니다.<sup>11)</sup> 사람에 따라 정치적 입장, 정치적 성향, 그리고 심지어는 철학적 정향 등에서 적지 않은 편차가 있다. 하지만 그들 중 여러 사람들이 서로 혼인을 맺었다는 사실과 그들 모두가 개인적으로 친한 교우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그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사람이 편집을 맡고 있는 잡지에 기고물 하고, 서로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고 또 서로 그 잡지의 판촉을 도모해 주기도 한다. 신보수주의자들이 펴낸 책들에서 볼 수 있는 감사의 글, 각주, 뒤쪽 표지의 추천광고 등을 보면 이와 같은 사실이 두드러진다(Gerson, 1997: 23-25).

신보수주의 집단이 갖고 있는 강점은 각자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힘멜파브(*Gertrude Himmelfarb*)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역사사회학

11) 예를 들어 크리스톨은 이념의 전쟁, 포도레츠는 유희의 문화, 노박은 휘그당주의의 부활, 버거는 근대성에의 도전 등을 주창한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Dorrien (1993: 20-29)을 참조할 것.

자이다. 으뜸가는 범죄학자로 꼽히는 윌슨(James Q. Wilson)은 미국정치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노박(Michael Novak)은 국제적으로도 잘 알려진 기독교 신학자이다. 포도레츠(Norman Podhoretz)는 이스라엘과 공산주의 분야의 전문가이다. 카스(Leon Kass)는 의사이면서 동시에 성경학자이다. 엡스타인(Joseph Epstein)은 저명한 문학 비평가이다. 크레이머(Hilton Kramer)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미국 문학 비평가이다. 버거(Peter Berger)는 너무나 유명한 사회학자이다. 뉴하우스(Richard John Neuhaus)는 도시 지역의 곳곳을 직접 파고들어 선교활동을 하는 유명한 가톨릭 신부로 평가받는다. 보크(Robert Bork)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법철학자의 한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모이니한(Daniel Patrick Moynihan)은 금세기 가장 재능있는 공무원으로 꼽힌다. 크리스톨(Irving Kristol)은 추진력이 매우 강한 사람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인들이 서로 친구로서 또는 원고 기고자로서 배우고 가르침을 주로 받으면서 신보수주의는 독특하면서도 깊이 있는 이념 집단으로 구축되었다.

신보수주의가 이념집단으로 정의될 수 있다면 어떤 영역에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지녔을까? 이에 대해 전통적 보수주의자인 할퍼(Halper)와 클라크(Clark)는 신보수주의가 첫째, 유사한 외교정책 결과를 기대하고, 둘째, 국제적 환경이 변화되는 것에 상관없이 다양한 문제에 대해 불변하는 이념적 해결책을 옹호하고, 셋째, 자신들이 제공하는 정책적 대안들은 특정 지역과 특정 정책 도구에 집중하고 있고, 넷째, 다른 선택 대안을 철저히 배제하는 데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지적하였다(Halper and Clarke, 2004: 37-38).

#### 4) 정책전략 분석방법으로 본 미국 신보수주의: 정책적 요소와 부시행정부

정책전략 분석방법(Policy Strategy Analysis)은 미국 신보수주의 이념의 현실화 과정과 현실 정책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현실적인 실천전략 요소가 강하다. 이 연구방법은 신보수주의들이 주장하고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주장과 근거를 분석함은 물론, 신보수주의 이념이 미국 정치와 외교 현실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sup>12)</sup>

정책전략 분석방법을 따르면 미국 신보수주의는 “특정 이념을 공유하면서 자신

들의 이념 목표를 실천하려는 지식인 집단의 운동(intellectual movement)”으로 정의된다(Halper and Clarke, 2004: 10-12). 신보수주의를 이렇게 정의하면 신보수주의자들은 신보수주의 전파를 목표로 자신들의 이념을 정책결정자들에게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이념적 기업가정신(ideological entrepreneurship)으로 무장한 세력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신보수주의 운동은 독립된 이념운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신보수주의 운동은 지난 50여 년 동안 미국사회에서 등장하고 있는 네 가지 유형의 우파운동의 일환이다. 그 네 가지 우파운동은 반공산주의 운동, 인종차별주의 운동, 기독교 복음주의 운동, 그리고 신보수주의 운동 등이 그것이다.<sup>13)</sup> 특히 이 지식인 운동에 신보수주의 실천 전략이 적용되면 신보수주의자들은 곧 민주적 제국주의자(democratic imperialists)로 규정되기도 한다(Daadler and Lindsay, 2003: 15-16). 신보수주의 운동은 정식회원을 가진 조직이 아니다. 그들은 정례모임을 갖거나 집회를 갖는 것도 아니다. 누가 신보수주의자이고 누가 신보수주의자가 아니다 하는 뚜렷한 분리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운동’이란 말 때문에 신보수주의가 갖는 지적 결속력이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보수주의 세력의 대부분 평가를 스스로 인정했던 크리스톨은 신보수주의를 일종의 설득(persuasion)이라고 묘사하고 있다(Kristol, 2003: 23-25).

신보수주의 지식인 운동은 냉전의 종식과 함께 이념의 균열 현상을 가져온 점이 주목된다. 원래 신보수주의자들은 반공산주의라는 신념에 있어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공산주의가 가져다 준 위협 때문에 그들은 일치된 정치 의제에 집중할 수 있었고 통일된 견해를 가질 수 있었다. 공산주의의 붕괴는 신보수주의자들로 하여금 그들 사이의 의견 불일치와 동맹관계의 균열을 가져다주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미국인 대중 사이의 정치문화에서도 보수주의에 대한 재평가 기회를 초래하였다.

12) 신보수주의 외교정책이 갖는 도덕적인 문제는 크게 전통적 보수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비판받고 있다.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에 의한 비판에 관해서는 Kissinger(2001: 272)와 Black(2004)의 내용을 볼 것. 또 자유주의자들에 의한 비판에 관해서는 Walzer(1979: 5), Chomsky(2003: 35), Lind(2003: 132)의 내용을 볼 것.

13) 신보수주의를 우파운동의 일환으로 평가하는 논지에 대해서는 Diamond(1995: 178-202)를 참조할 것.



신보수주의의 균열은 미국의 세계적 임무를 둘러싸고 세 개의 외교정책 캠프로 쪼개졌다(Dorrien, 1993: 324-329). 첫 번째 캠프는 현실주의(Realist) 캠프로 불린다. 이는 말하자면 신보수주의의 주류 캠프로서 크리스톨(Irving Kristol)과 켈크패트릭(Jeane Kirkpatrick)에 의해 주도되는 당파이다. 이들의 외교적 주장은 일방주의와 현실주의로 요약된다. 이들은 냉전이 끝났다고 해서 신보수주의가 믿어왔던 신념이 바뀔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대신 관심을 현실정치로 돌릴 것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미국 외교에는 강한 미국적 도덕주의가 반영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고립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두 번째 캠프는 민주적 세계주의자(democratic globalist)로 불린다. 숫자상으로 제일 많은 신보수주의자들이 그 뜻을 같이하는 캠프이다. 텍터(Midge Dector)와 무라브직(Johshua Muravchik) 등이 이 집단의 대표로 꼽힌다. 텍터의 주장에 의하면 “신보수주의 운동의 균열은 고립주의자로 돌아선 어빙 크리스톨과 같은 일방주의자들과 우리와 같은 개입주의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리 개입주의자의 생각에는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지니고 세계를 안정시킬 책무를 갖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들에 의하면 신보수주의의 진정한 계승은 십자군 정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신보수주의자들은 민주주의적 자본주의는 물론 민주주의 제국의 촉진에 매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이 세계의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할 책무는 바로 미국의 개입주의에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세 번째 캠프는 일방주의 혹은 민주적 제국론과는 구별되는 단극주의(Unipolarism)를 지지하는 집단이다. 단극주의는 공동체는 일종의 구조를 낳는다는 점을 가정한다. 단극주의는 미국 외교의 목표가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그에 접근하는 방식은 다르다. 민주적 제국론자들이 주변국가에 집중하여 어떻게 하면 그들을 민주화 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단극주의자들은 관심을 서구 중심국가에 초점을 둔다. 크라우트햄머(Charles Krauthammer)가 주장하기를 공산주의 붕괴는 미국이 담당할 책무의 구조를 변화시켰다. 미국의 첫 번째 책무는 제삼세계 국가들의 민주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구 산업국가들의 단결에 있다. 서구국가들의 단결이야말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서구 국가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정치 경제적으로 자유화함으로써 각자가 단극체제에서 중심에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3. 한국에서의 미국 신보수주의 연구현황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미국 외교정책 변화가 가져다주는 충격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난 2~3년 동안 미국 신보수주의에 관한 사회적 관심은 크게 고조되었다.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신보수주의와 신보수주의 세력을 지칭하는 네오콘에 관한 문헌들은 홍수를 이루어왔다. 미국 신보수주의에 관한 연구는 간헐적으로 학술적으로 다루어져 왔지만 언론매체와 시사 잡지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거의 모든 시사 잡지, 지성계의 간행물, 그리고 다수의 단행본 등은 특정한 신보수주의자의 프로필을 다루고 있거나 신보수주의자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토론을 전개해 왔다.

이들 업적물들이 미국 신보수주의에 관해 매우 흥미롭거나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던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들이 논하는 신보수주의자들은 보통 흥미롭고 영향력 있는 사상가와 정치세력으로 등장한다. 또 그들이 논하는 신보수주의자들은 대규모 운동이나 광범위한 전통 또는 아주 포괄적인 유행 등에 어스름하게 줄을 세우는 경향이 있다. 한국에서의 미국 신보수주의 연구는 대체로 문제의식과 관심은 지대한 반면 학술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빈곤 상태라고 요약될 수 있다.

한국에서의 미국 신보수주의 연구 현황과 그 의미를 앞에서 제시한 화술방식 분석방법, 사고유형 분석방법, 권력네트워크 분석방법, 그리고 정책전략 분석방법으로 나누어 파악하고자 한다. 그 대상은 주로 학술적 연구를 중심으로 논한다.

#### 1) 화술방식 분석방법의 연구현황

임용순(1990: 92-100) 교수는 1990년 《미국학논집》에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시기를 중심으로 미국 사회가 뉴딜연합에서 급격하게 보수화되는 경향을 소개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신보수주의가 한국에서 커다란 관심을 끌기 이전에 발표된 학술적 논문이라는 데 그 가치가 있다. 임 교수는 이 글에서 1980년대를 미국사회가 갖고 있는 파라독스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10년이라고 규정했다. 그에 의하면 미국은 그 파라독스를 보수주의 기치 아래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경

제정책은 신보수주의 이론을 도입하여 시장경제로 전환하였다. 국방정책에서는 소련을 악의 제국으로 정의하고 국방비를 엄청나게 증가시켰다. 대법원은 진보적 경향이 강하게 신축성있는 법의 해석 방침에서 보수적 경향이 강하게 엄밀한 법의 해석 방침으로 전환하였다. 연방정부의 많은 권한이 신연방주의의 기치 하에 지방정부로 이관되었다. 이러한 보수주의 석권을 성공시킨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이었는데, 임 교수는 이러한 뉴딜연합의 붕괴과정을 신보수주의 흐름으로 규정했다. 이 논문은 미국 신보수주의 등장을 1980년대 이후 미국사회의 새로운 우경화 경향과 접목시켜 파악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논문 이외에 연대기적 역사적 접근방식을 택하는 화술방식으로 미국 신보수주의를 연구대상으로 한 문헌들은 모두 2002년 이후에 출판된 것이다. 이 중에서 비록 번역서이긴 하지만 《우익에 눈먼 미국: 어느 보수주의자의 고백》이란 책은 공화당원이었던 필자의 화술을 통해 미국 신보수주의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 되었으며 어떤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지를 소개해 주는 학술서적이다. 이 책은 신보수주의가 등장하는 배경을 인종주의에 호소한 닉슨의 ‘남부전략’, 1970년대 낙태권리 및 평등권에 관한 수정법 반대운동, 폴 웨이리치와 1979년 미국을 ‘기독교국가’로 선포한 제리 폴웰 목사의 정치 조직 작업, 1980년 레이건 대통령 당선, 그리고 팻 로버트슨 목사의 기독교 연합으로 이어지는 전통에서 찾고 있다 (Brock, 2002: 192). 이 책은 신보수주의자인 윌리엄 크리스톨(William Kristol)에 대해 “정치적 판단이 뛰어나고 엘리트 언론들의 흐름에 대한 본능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두 연구물 이외에 미국 신보수주의의 뿌리와 등장배경 등에 관해서 몇몇 시사 잡지에서 다루고 있다(신유섭, 2004: 19-23; 안병진, 2003: 18-38; 양진석, 2004: 131-136). 이들 연구들은 모두 냉전세력인 신보수주의가 어떻게 역사적 맥락과 주제적 노력으로 21세기에 와서 집권했는지를 추적하였다. 또 이들의 이념적 뿌리와 기질적 특질이 갖는 특성을 정리했다. 이들 연구들은 대체로 미국 신보수주의가 역사적으로 등장한 배경을 1964년 대통령 선거에서 골드워터(Barry Goldwater) 공화당 후보가 뉴딜과 민권운동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당시 만연한 진보적 풍조에서 보수주의 주장의 싹을 잉태하였던 점을 지적하였다. 또, 1960년대 미국 사회를 풍미한 일련의 사회운동, 즉 민권운동, 반전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등에 찬성하지 않고 자본주의, 개인의 자유, 기독교 전통, 이성주의 등 미국 가치관 보존에 관심이 있었던 의견들이 수면 아래에 있었고, 민주당 정부가 추진하는 거대사회(Great Society) 프로그램이 별로 성공적이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2) 사고유형 분석방법의 연구현황

사고 유형 분석방법으로 볼 때 한국에서 미국 신보수주의의 사상적 배경과 특징을 기술한 선구적인 업적은 이봉희 교수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교수는 1989년에 《한국정치학회보》에 “급진적 보수주의 정치: 미국의 뉴라이트 등장을 중심으로”란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논문은 1996년에 그 내용이 보강되어 《보수주의: 미국의 신보수주의를 중심으로》란 연구서로 출판되었다. 이 연구서는 미국 신보수주의 사상은 버크(Edmund Burke) 사상에서 깊이 영향을 받았고 1950년대부터 싹트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에 의하면 보수주의는 프랑스 혁명 이후 사회정치적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정치 양상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현상유지주의와 반동주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미국의 신보수주의는 미국적 자유주의에 대한 대응조치로 현대 정치 문제 해결을 제시함으로써 전통적 보수주의보다 현대 정치의 현안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평가를 내렸다(이봉희, 1996: 181-183).

흥미로운 것은 미국 신보수주의 이념의 사상가로 러셀 커크(Russell Kirk)와 피터 비레크(Peter Viereck)를 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 교수에 의하면 미국 현대 보수주의 사상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론가로서 커크와 비레크를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커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신보수주의 선구자로서 서구의 고전적 보수주의 성향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구체화시킨 사상가로 평가하고 있다. 이 교수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버크의 사상은 미국으로 건너와 존 애덤스, 해밀턴, 존 랜돌프, 우드로우 윌슨, 윌터 리프만, 어빙 배빗 등의 사상가들에게 전승되어 미국적으로 토착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그 후 2차 세계대전 후에는 커크와 비레크의 신보수주의로 승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봉희 교수는 2003년 다른 연구논문에서 신보수주의가 미국식 뉴딜식 자유주의 대안으로

등장하긴 했지만 버크 사상의 재조명 차원에서 인식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 봉희, 2003: 14-27).

권용립(1997: 2003) 교수는 미국 외교정책의 근원을 미국 전통과 사상에서 찾는 단행본을 두 권 집필했다. 이 두 권의 책은 모두 미국 신보수주의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신보수주의를 미국 정치 문명의 근본에 대한 충격으로 보고 1970년대 미국 사회의 보수화 경향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하고 있다. 권 교수가 1997년에 출판한 《미국 대외정책사》는 미국외교의 역사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 정치 전반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미국 외교사를 미국 정치사와 외교정책의 조합에서 그 뿌리를 추적하였다. 이 책에서 권 교수는 신보수주의가 대두된 요인을 1960년대 이후 시작된 공화당의 남부 벨트 침투, 남부 백인의 탈 민주당화, 양대 정당의 이념적 양극화 현상을 부채질한 새로운 사회쟁점의 대두, 그리고 기독교 우익 세력의 증대 등을 꼽았다. 이어 권 교수는 2003년에 출판한 《미국의 정치 문명》에서 미국 신보수주의는 미국 정치의 전통과 전형을 보존하려는 미국 정치문명의 자기 조절 현상으로 파악하였다.

2000년 이후 미국 신보수주의에 대한 관심의 결과로 학술적 차원에서 발표된 연구는 안병진(2004: 127-132) 교수가 2004년 봄에 《한국정치학회보》에 발표한 논문이 있다. 이 논문에서 안 교수는 신보수주의 정치세력의 이념은 하나의 일관된 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상적 뿌리들이 얽혀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 교수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을 레오 스트라우스(Leo Strauss)로 규정하고 스트라우스 이념의 특징을 엘리트주의, 절대적 도덕관, 시민적 덕성의 중시, 종교적 입장, 그리고 공포와 힘의 중요성 등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안 교수의 주장과는 상통하면서도 약간 다른 견해를 피력한 학술연구로는 이상돈(2004: 199-222) 교수와 최명덕 교수(2004: 265-286)가 《미국학논집》에 2004년에 발표한 논문이 있다. 이상돈 교수는 미국의 대외정책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한국에서 부시 행정부 외교정책의 나침반으로 알려진 신보수주의를 다루는 기사들이 많지만 그것들은 주로 외교정책에 초점을 두고 신보수주의를 조명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의식으로 삼았다. 그에 의하면 그러다보니 신보수주의라는 간단치 않은 정치철학이 하나의 외교정책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신보수주의는 외교정책과는 거리가 먼 철학, 문학, 종교 같은 인문학적 토대에서 자라났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신보수주의 원류로 한국에서는 레오 스트라우스가 알려져 있지만 신보수주의자라 불리는 많은 지식인들은 스트라우스 교수가 '근대성에 대해서는 좀 지나치게 몸을 사린다'는 것 같으며 그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신보수주의 대부로 알려진 어빙 크리스톨은 자신이 갖게 된 세계관은 라이오넬 트릴링(Lionel Trilling)과 라이홀드 니버(Reinhold Niebuhr)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트로츠키 안이었던 대학생 크리스톨에게 진보주의 한계를 지적해 주고 인간정신을 회복시켜 주었던 사람이 바로 트릴링이었고 이를 계기로 그는 공산주의와 결별하였다는 것이다.

최명덕 교수는 미국 신보수주의 형성에 기독교 우파의 영향을 강조하였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1980년대 미국의 신우파(New Right) 운동의 중심에는 기독교 우파가 있었으며 그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제리 폴웰(Jerry Falwell)의 '도덕적 다수(Moral Majority)' 운동이었다. 도덕적 다수 운동은 미국의 기독교, 가톨릭, 유대교의 우파적 종교들의 연합운동이었다. 이들은 세밀한 사회운동 조직이라기보다 느슨한 사회운동이었다.

미국 신보수주의에 관한 단행본으로 출판된 이주영(2003) 교수와 김지석(2004) 교수의 연구는 교양서라는 서지학적 특징이 있다. 이주영 교수의 《미국의 좌파와 우파》란 책은 미국에서 흔히 이념적으로 분류되는 좌파와 우파에 대한 정의를 역사적으로 정리해 소개해 주고 있다. 김지석 교수의 《미국을 파국으로 이끄는 세력에 대한 보고서》란 책은 미국의 보수주의를 구보수파(Paleoconservative) 또는 전통적 보수파(Traditional Conservative), 네오콘, 기독교 우파(Christian Right), 온건 공화당원(Moderate Republic), 그리고 리버테리안(Libertarian) 등 네 가지로 나누고 있다. 특히 신보수주의 정치세력인 네오콘은 자신들의 웹사이트(www.neoconservative.com)에서 "문화적 전통주의, 민주적 자본주의, 자유와 미국의 이익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대외정책을 추구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두 단행본의 공통점은 미국 신보수주의가 갖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미국적 민족주의와 기독교 근본주의의 결합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는 점이다.

미국 신보수주의를 사고유형 분석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몇몇 번역서가 눈길을 끈다(룸 인터네셔널, 2004; 오타 류, 2004; Huntington, 2004; Soros, 2004). 이 중

에서 《미국의 진실: 자유의 여신상 속에 감추어진 진실》과 《네오콘의 음모》란 두 책은 모두 일본의 시각에서 미국 신보수주의에 대한 천박한 이해와 관심의 정도를 반성하고 미국 신보수주의의 실체를 신보수주의 사상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

《새뮤얼 헌팅턴의 미국》이란 책과 《미국 패권주의의 거품》이란 책은 미국 신보수주의에 대해 대립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저작이다. 신보수주의자로 평가받고 있는 헌팅턴(Samuel Huntington)은 미국인들이 지난 350년 동안 모든 인종과 민족, 종교를 끌어안았던, 그리고 자신들이 세상을 위해 추구하던 자유와 단결, 힘, 또 도덕적 리더십의 원천인 앵글로-개신교도 문화와 전통, 그리고 가치관에 다시 한번 헌신해야 한다고 믿는다. 또 “미국인들은 늘 자신들의 국가를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종교들이 전통적인 유대-기독교 도덕성에 합치하기만 하면 그것들을 똑같이 인정해 왔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현실적인 지위의 완전한 평등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고 회고하면서 어빙 크리스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소로스(George Soros)는 신보수주의의 문제점을 첫째, 그들의 노력이 미국 대외정책이 전통적으로 지녀왔던 ‘균형’에서 벗어나 외교정책의 불연속성을 가져왔고, 둘째, 참여자로서 인간은 정도와 특성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느 부분에선가 분명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칼 포퍼의 근본적 오류의 공리(postulate of radical fallibility)에 빠져 있다는 데서 찾고 있다.

이들 연구 이외에 미국 신보수주의 이념에 관한 소개와 비판은 시사 잡지에서 발견된다(권오성, 2003: 25-31; 김수영, 2004: 152-172). 이들 저술은 비록 분량이 길지 않지만 모두 현대 미국사회를 지배하는 이념으로서의 미국주의를 더욱 심화시키는 이념으로서 신보수주의를 소개하고 네오콘의 사상과 이론을 선정적이고 대중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고 사상과 이론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학술적 연구라기보다 시평에 가까운 방식을 택하고 있다.

### 3) 권력네트워크 분석방법의 연구현황

우리나라에서 권력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채택한 연구물로 다음 몇 가지 연구가 주목된다. 우선 이장훈(2003) 기자가 출판한 《네오콘: 팩스 아메리카나의 전사

들》이란 책이다. 이 책에서 이 기자는 지난 '잃어버린 10년', 즉 주로 클린턴 대통령 집권기간 동안 네오콘들은 미국제국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신보수주의자들은 9·11을 계기로 자신들의 목표를 하나씩 실천하고 있다. 이들은 주도면밀하게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조직했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논리를 합리화했다.

이 기자는 신보수주의자들이 9·11 테러가 발생하기 10년 전에 이미 9·11 이후 10년 앞을 내다보는 전략을 마련했다는 점을 포착했다. 그는 부시행정부가 2002년에 채택한 '국가안보전략'은 그들이 이미 1992년에 작성한 것이었다는 점을 증거로 들었다. 그는 신보수주의자들은 진주만 공습과 같은 사건이 날 것을 예측하고 있었고 심지어 울포위츠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할 것을 1977년에 이미 예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은 20년 경력의 국제정치 전문기자가 기술한 네오콘의 조직, 인맥, 정치철학, 군사전략, 그리고 세계와 한반도 운명 등에 관한 탁월한 교양서이다. 하지만 이 책은 후반부에 참고문헌을 제시하고 있지만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를 찾아내는 각주가 없어서 아쉬움이 있다.

“미국 신보수주의 정책의 등장과정에서 연구재단(Think Tank)의 역할에 관한 연구”(김현철, 1997)란 논문은 신보수주의 등장을 연구재단과 연계시킨 점에서 의의가 있는 논문이다. 이 논문이 갖는 문제의식은 신보수주의 사상의 등장이 구체적 현실을 기반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사상의 연구와 더불어 현실적 조건과 등장 경로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미국 신보수주의와 연구재단이라는 사상과 정치제도를 함께 살펴보야 할 과제가 생긴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논문은 신제도주의론을 분석틀로 상정하여 연구재단이 신보수주의 형성 과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의 결론은 미국 신보수주의 세력은 지식인들과 자본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것이며 그 산물이 연구재단이라는 것이다. 이 논문은 공화당 우위의 '동맹'이 '뉴딜동맹'에 비해 미약하지만 닉슨 집권 이후 공화당 우위의 새로운 '유권자 동맹'이 등장한 사실이 정치적 정렬(political alignment)로 평가할 수 있다는 래드(Everett Ladd) 교수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부시 메이드인 텍사스》란 책은 미국 신보수주의 비판자의 한 사람인 마이클 린드(Michael Lind, 2003)의 책을 번역한 것이다. 린드는 텍사스 정치를 두 개의 상충되는 패러다임에서 조망했다. 하나는 루즈벨트의 뉴딜 정신을 이어받은 린든



B. 존슨, 로스 페로, 그리고 샘 레이번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적 근대주의이다. 이들은 텍사스의 산업구조를 미래지향적으로 변화시켰고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에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외교에서도 국제공조를 지향해 창의적인 벤처인, 엔지니어 그리고 개혁성향의 정치인과 관료들을 배출했다.

린드에 의하면 이와 대립되는 정치세력은 조지 W. 부시와 그를 추종하는 텍사스 보수주의자들이다. 이들은 농업, 목축, 석유 그리고 광업 등 1차 산업에 기초한 지대추구자들로 군사문화, 지역적 배타성, 종교적 윤리주의, 그리고 워싱턴 기득권 정치에 대한 맹목적 거부를 기치로 삼는다. 이들은 백인 과두 체제의 유지에 일차적 관심이 있다. 미국의 고뇌는 바로 이 반동적 텍사스 우익의 집권에 있다. 이들의 지속적 집권은 미국 경제의 피폐화는 물론 빈부격차 악화, 환경 파괴, 종교적 독선, 그리고 지역적 분열의 심화를 통해 미국의 장래를 어둡게 할 것이다. 또 외교에서도 남부 기독교 원리주의자들과 이스라엘 우파와의 연계를 가진 유태계 신보수주의자들간의 연합은 미국 내에서 제국주의적 발상을 가시화시키고 있다.

이 책의 흥미로운 분석 시각은 미국 신보수주의 세력의 정치력을 텍사스 전쟁으로 대별시키고 있는 점이다. 이 책은 부시의 외교정책이 미국 외교전통을 계승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19세기 영국 제국주의와 놀라우리만큼 유사하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이 책은 21세기 미국은 ‘화려한 고립’ 속에서 세계 경찰을 담당하고 자유무역을 장려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 책에서 린드는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영국 복음주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 미국 복음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을 성스러운 땅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이 밖에 《누가 미국을 움직이는가》(다카히코, 2001)란 번역서가 있다. 이 책은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4백여 주요 인물들의 활동과 사상을 신보수주의 네트워크란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다. 개별 인물들의 학연과 혈연, 그리고 사회적 연계망을 파헤치고 있는 훌륭한 교양서로 평가된다.

#### 4) 정책전략 분석방법의 연구현황

우리나라에서 미국 신보수주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것은 조지 W. 부시 행정

부 출범 이후 9·11 테러와 이라크 전쟁의 배경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촉발 원인이 되었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미국 신보수주의에 대한 연구서와 각종 비평들은 대부분 신보수주의의 정책방향이나 외교전략에 대한 소개와 비판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미국 신보수주의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각종 언론매체와 시사 주간지에는 미국 신보수주의 정치세력의 외교전략을 소개하고 비판하는 출판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이들 출판물들을 일일이 열거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주로 학술적 연구 동향을 중심으로 미국 신보수주의 연구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김성한(1995: 229-249) 교수가 1995년에 발표한 “미 복지 및 이민정책 변화를 통해 본 신보수주의의 지속성 평가”란 논문은 미국 신보수주의가 아직 한국에서 잘 알려지기 이전에 미국 행정부의 복지정책과 이민정책을 둘러싸고 레이건 행정부의 등장 이후 미국 사회가 보수화되는 과정에서 신보수주의의 지속성을 평가한 글이다. 또 김 교수는 2002년에 발표한 “미국의 세계전략과 신보수주의의 미래”란 논문에서 부시 행정부의 외교기조를 신보수주의 세계전략에서 찾아 제시하였다(김성한, 2003: 5-39).

백창재(2003: 83-104) 교수가 2003년에 발표한 “미국 신보수주의 분석”이란 논문은 신보수주의자의 범위와 네트워크를 시작으로 신보수주의가 미국정치 전반과 미국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신보수주의 형성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요약, 분석한 글이다. 백 교수는 이 논문에서 1980년의 선거는 신보수주의 형성과정에서 두 가지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지적했다. 첫째, 이 선거를 계기로 신보수주의자들이 공화당과 보수주의에 본격적으로 합류하여 레이건 경제정책과 대소 강경책을 옹호했다. 둘째, 레이건 당선 후 신보수주의자들이 레이건 행정부에 입각하게 되었고, 특히 외교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전까지 신보수주의자들이 강연과 기고문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확신시키는 지식인 운동에 머물렀다면, 이때부터 정당과 행정부에 참여하여 현실정책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로 변화되었다.

김동춘(2004: 211-239) 교수가 2004년에 발표한 “미국 네오콘의 제국 기획”란 논문은 미국 신보수주의자들의 세계전략을 로마제국 건설에 비견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신보수주의 세력이 추진해 온 전략은 그들의 정책

적 실행이 미국은 물론 비민주적인 국가의 백성들에게도 좋다는 과거 로마가 취해온 제국건설 노선을 반복하는 위선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논문에서 김 교수는 또 1940년대 말에서 1950년대 초까지 애치슨(Acheson)이 유럽과 아시아를, 1970년대에 키신저(Kissinger)가 남미와 아시아에 미국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면, 오늘 신보수주의자들은 바로 중동의 장악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2004년에 출판된 《미국의 신보수주의 외교전략과 한반도 평화문제》란 단행본은 그 내용이 미국의 전반적인 외교전략을 다루고 있어서 신보수주의에 대한 집중연구가 아니라는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이 책의 한 장을 집필한 이해영(2004: 99-128) 교수는 “제국의 그늘: 미국 신보수주의와 한반도 평화”란 논문에서 미국 신보수주의를 “세계무역기구(WTO)로 정점에 도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우익적 위기관리체계”라는 독특한 해석을 내렸다.<sup>14)</sup> 이 교수는 이라크 전쟁 이후 예상되는 신국제질서의 향방을 유엔의 무력화, 파리-베를린-모스크바가 중심이 되는 대항의 축 형성, 전지구적 평화운동 촉발 등을 들었다.

2003년에는 관점은 다르지만 미국 신보수주의 입장을 옹호하는 두 권의 책이 번역 출판되었다. 이 두 권의 책은 모두 신보수주의자로 평가되는 두 사람이 저술한 책이다. 플린(Flynn, 2003)이 집필한 《미국의 변명》은 신보수주의가 신봉하는 높은 도덕성은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인식이라는 연구과제로 위장한 정치강령이다. 다문화주의의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미국인을 압제자와 피압제자로 갈라놓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게 된다. 역압의 범주에 대한 이 같은 신뢰는 결국 다문화주의자들로 하여금 박해집단을 지지하는 한편 특권집단으로 간주되는 이들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기회의 평등을 모색하도록 만든다. 플린에 의하면 개인의 성적 기호나 피부색이 그가 서구사회에서 차지하는 특권적 지위를 드러낸다고 하는 다문화주의 분석방법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신보수주의 운동가인 케이건(Kagan, 2003)이 집필한 《미국 vs 유럽 갈등에 관한 보고서》는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표면화된 미국과 유럽 사이의 갈등과

14)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이해영(2003: 35-53)을 참조할 것.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저자에 의하면 미국과 유럽 사이의 견해차가 커진 것은 경험과 현실적 힘의 차이 때문이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본토에서 경험한 뒤 소련의 위협을 받아온 유럽이 오늘날 연합체를 형성한 것이나, 세계의 경찰관 역할을 해온 미국이 군사력을 중시하는 것은 양쪽의 경험을 참고할 때 납득할 만하다. 그러나 무대를 세계로 넓혀 보았을 때 유럽 대륙 바깥에서도 '타협정신'이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유럽은 오히려 미국의 적극적 역할에서 얻을 현실적인 도움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신보수주의' 시각에서 유럽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정책전략 분석 방법 관점에서 미국 신보수주의를 소개하고 조명한 시사평론 류의 글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들 대부분은 시평의 형태로 시사 잡지를 통해 발표되었다. 또 언론에서도 신보수주의 세력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내 각종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월간중앙》, 2003; 《신동아》, 2003; 《월간조선》, 2003a; 2003b; 《시사저널》, 2003). 이들 시평들은 모두 2003년 이라크 전쟁이 종식된 이후 집중적으로 발간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신보수주의 혹은 네오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내용은 발표된 시평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으로 미국 신보수주의 세력을 9·11 테러나 이라크 전쟁 배후 세력으로 지목하고 있다. 또 부시 행정부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파헤치거나 신보수주의의 안보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권용립(1997), 《미국 대외정책사》, 서울: 민음사.
- \_\_\_\_\_(2003), 《미국의 정치문명》, 서울: 삼인.
- 김동춘(2004), “미국 네오콘의 제국 기획”, 《황해문화》 42(봄): 211-239.
- 김성환(1995), “미 복지 및 이민정책 변화를 통해 본 신보수주의의 지속성 평가”, 《국제정치논총》 35(2): 229-249.
- \_\_\_\_\_(2003), “미국의 세계전략과 신보수주의의 미래”, 《국제관계연구》 8(1), 통권 15호, 여름: 5-39.
- 김지석(2004), 《미국을 파국으로 이끄는 세력에 대한 보고서》, 서울: 교양인.
- 김현철(1997), “미국 신보수주의 정책의 등장과정에서 연구재단(Think Tank)의 역할에 관한 연구”, 1997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롭 인터내셔널(2004), 주창길(역), 《미국의 진실: 자유의 여신상 속에 감추어진 진실》, 서울: 이치.
- 린드 마이클(Lind, Michael)(2003), *Made in Texas*, 임종태(역), 《부시 메이드인 텍사스》, 서울: 동아일보사.
- 백창재(2003), “미국 신보수주의 분석”, 《국가전략》 9(3), 가을: 83-104.
- 소에지마 다카히코(2001), 신동기(역), 《누가 미국을 움직이는가》, 서울: 들녘.
- 안병진(2004), “신보수주의의 이념적 뿌리와 정치적 함의: 레오 스트라우스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8(1), 봄: 127-142.
- 오타 류(2004), 《네오콘의 음모》, 민혜홍(역), 서울: 아이필드.
- 이봉희(1996), 《보수주의: 미국의 신보수주의를 중심으로》, 서울: 민음사.
- \_\_\_\_\_(2003),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에드먼드 버크에서 신보수주의까지”, 《황해문화》 봄: 14-27.
- 이상돈(2004), “신보수주의의 기원과 라이오넬 트릴링(Lionel Trilling)의 *The Middle of the Journey*”, 《미국학논집》 36(2), 가을: 199-222.
- 이장훈(2003), 《네오콘: 팩스 아메리카나의 전사들》, 서울: 미래 M & B.
- 이주영(2003), 《미국의 좌파와 우파》, 살림지식총서 001, 서울: 살림.
- 이해영(2003), “제국과 한반도: 신보수주의적 세계질서와 북핵위기”, 《진보평론》 16(여름): 35-53.
- \_\_\_\_\_(2004), “제국의 그늘: 미국 신보수주의와 한반도 평화”, 한신대사회과학연구소(편), 서울: 인간과복지.
- 임용순(1990), “1980년대 미국사회와 정치: 신보수주의의 석권”, 《미국학논집》 22(12

월): 92-100.

최명덕(2004), “레이건 시대의 기독교 신우파의 정치참여”, 《미국학논집》 36(2), 가을: 265-286.

“부시 행정부 이라크 관련 핵심인물 6인의 송곳진단”(2003), 『월간중앙』, 2003년 12월호.

“미국 신보수주의의 대부 어빙 크리스틀”(2003a), 『월간조선』, 2003년 10월호.

“미국 지배하는 유대인 수퍼파워 네오콘”(2003), 『신동아』, 2003년 12월호.

“백악관 점령한 네오콘 군단”(2003), 『시사저널』, 2003년 5월호.

“신보수주의의 인맥 연구”(2003b), 『월간조선』, 2003년 7월호.

Black, David Alan (2004), “Prologue”, in *Why I Stopped Listening to Rush: Confessions of a Recovering Neocon*, Baltimore: Publish America.

Brock, David(2002), *The Conscience of an Ex-Conservative*, 한승동 역(2002), 《우익에 눈먼 미국: 어느 보수주의자의 고백》, 서울: 나무와 숲.

Chomsky, Noam (2003), “Power and Terror: Post-9/11 Talks and Interviews”, New York: Seven Stories Press.

Daalder, Ivo H. and James M. Lindsay (2003), *America Unbounded: The Bush Revolution in Foreign Polic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DeMont, Philip and J. Eugene Lang (1999), *Turning Point: Moving beyond Neoconservatism* Toronto: Stoddart.

DeMuth, Christopher and William Kristol (eds.) (1995), *The Neoconservative Imagination*, Washington, D.C.: The AEI Press.

Diamond, Sara (1995), *Roads to Dominion: Right-Wing Movements and Political Power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Dorrien, Gary (1993), *The Neoconservative Mind: Politics, Culture, and the War of Ideology*, Philadelphia, PA: Temple University Press.

*Economist*, “The Shadow Men”, 2003/04/24: 4.

Ehrman, John(1995), *The Rise of Neoconservatism: Intellectuals and Foreign Affairs 1945-1994*,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Flynn, Daniel J. (2003), *Why the Left Hates America*, 오영진(역), 《미국의 변명》, 서울: 한국경제신문.

Frum, David (1994), *Dead Right*, Toronto: HarperCollins.

Gerson, Mark (1997), *The Neoconservative Vision: From the Cold War to the Culture Wars*, New

- York: Madison Books.
- Halberstam, David (2002), *War in a Time of Peace: Bush, Clinton and the Generals*, New York: Touchstone.
- Halper, Stefan and Jonathan Clarke (2004), *America Alone: The Neo-Conservatives and the Global Ord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irsh, Michael (2003), “불안한 미래에 직면한 신보수주의”, 《뉴스위크 한국판》 6월.
- Huntington, Samuel (2004), *Who are We?*, 형선호(역), 《새뮤얼 헌팅턴의 미국》, 서울: 김영사.
- Judis, John B. (1988), *William F. Buckley Jr.: Patron Saint of the Conservatives*,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Kagan, Robert (2003), *Of Paradise and Power: America vs Europe in the New World Order*, 홍수원(역), 《미국 vs 유럽 갈등에 관한 보고서》, 서울: 세종연구원.
- Kissinger, Henry (2001), *Does America Need a Foreign Polic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Kristol, Irving (1977/1983), “Memories of a Trotskyist”, *New York Times*, January 24, Reprinted in *Reflections of a Neoconservative*, New York: Basic Books.
- Kristol, Irving (1987), “The Spirit of ‘87” , *Public Interest*, Spring.
- Kristol, Irving (1989), “Second Thoughts: A Generational Perspectives”, David Horowitz and Peter Collier (eds.), *Second Thoughts: Former Radicals Look Back at the Sixties*, Lanham, Md.: Madison Books.
- Kristol, Irving (1995), *Neoconservatism: The Autobiography of an Idea*, Chicago, Illinois: Ivan R. Dcc, Publisher.
- Kristol, Irving (2003), “The Neo-Conservative Persuasion”, *Weekly Standard*, August 25.
- Lind, Michael (2003), *Made in Texas: George W. Bush and the Southern Takeover of American Politics*, New York: Basic Books.
- Mannheim, Karl (1953), “Conservative Thought”, Paul Kecskemeti (ed.), *Essays on Sociology and Social Psychology*, London: Routledge: 74-164.
- Moynihan, Daniel Patrick (1975), *A Dangerous Place*, New York: Secker and Warburg.
- Podhoretz, Norman (1995), “Following Irving”, *The Neoconservative Imagination: Essays in Honor of Irving Kristol*, Washington: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 Richter, Paul (2004), “A Tough Time for Neocons”, *Los Angeles Times*, June 10th, 편집부(역), “네오콘의 수난시대”, 《국제문제》 8월, 90-94.
- Sills, David L. (ed) (1974),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17, The Macmillan Company and The Free Press.

- Soros, George (2004), *The Bubble of American Supremacy*, 최종욱(역), 《미국 패권주의의 거품》, 서울: 세종연구원.
- Steinfels, Peter (1979), *The Neoconservatives: The Men Who Are Changing America's Politics*,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Walzer, Michae (1979), "Nervous Liberals", Review of *The Neoconservatives: The Men Who Are Changing America's Politics* by Peter Sterfels, New York Review of Books, October 11.
- Weintraub, Jeff (1996), *Freedom and Community: The Republican Virtue Tradition and the Sociology of Liber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ilson, James Q. (1981), "Contribution to Neoconservatism: Pro and Con", *Public Interest* 64, Summer.



## A Study of American Neo-conservatism: Its Definition, Methodology and Literature Review\*

Namkung, Gon\*\*

This study intends to explore literature review and definition on American Neo-conservatism. To do this, this study employs four different kinds of methods as follows; First, the method of narrative analysis focuses on Neo-conservatives' biographical stories. It employs a chronological and historical description in order to explore their origins and political environments around them. Second, the method of thought-style analysis is concerned with pursuing Neo-conservatives' thoughts and ideas. It analyzes their belief system. Third, the method of power network analysis tries to find Neo-conservatives' social network. It deals with them as a political interest group. Fourth, the method of policy strategy analysis is to explain the process of execution of Neo-conservatives' political strategy. It finds the linkage of new world order and the expansion of Neo-conservatism around the world.

---

\* All papers on American Neo-conservatism in this number were studied by supporting of Korea Research Foundation in 2003(KRF-2003-042-B00012).

\*\* Assistant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gon2000@ewha.ac.kr

